

도탄소산업 세계에 알린다

국제탄소페스티벌·JEC ASIA 컨퍼런스 공동 개최... 시너지 효과 기대

전북도는 제12회 국제탄소페스티벌(ICF) 행사와 JEC ASIA 2017 (국제 복합소재전시회)를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공동으로 개최할 계획이며, 7월 12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JEC ASIA 프레스 컨퍼런스를 열고 행사 개최 방향 등 사전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JEC는 25만명의 전문가 네트워크로 세계 최대의 복합소재 산업조직. 북미와 아시아에 지사를 개설. 'JEC ASIA 2016 국제복합소재전시회'는 싱가포르에서 개최됐으며, 복합소재 산업은 전세계 55만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2015년 기준 690억 달러의 산업규모이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JEC 그룹 위촉대표의 세계 복합소재 산업 최근 트렌드와 JEC ASIA ICF 전시회에 대한 자세한 소개가 있을 예정이며,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정동철 원장의 '전라북도 탄소산업 현황 및 ICF 소개' 등의 주제발표를 통해 복합소재 현황과 미래를 전망한다.

11월 4일(수), JEC ASIA 2017 5개

컨퍼런스(카본, 자동차, 항공, 스포츠 레저, IT 및 전기전자) 중 전북도가 주관하는 ICF 포럼은 'Carbon'을 주제로 개최된다. 탄소관련 국내외 저명인사 14명을 초청하여 세계 탄소산업 동향 및 기술개발에 대한 현황을 소개하는 명실상부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이다.

전시회에서는 ICF 특별관(219㎡)을 마련, 도내 20여개 기업이 참여해 탄소복합재 우수 제품 홍보와 세계 최대의 탄소산업 클러스터인 독일 MAI 카본과 콜라보레이션 전시회를 통해 최신기술 동향을 소개할 예정이다.

ICF 특별관에는 탄소소재와 예술을 융합하여 탄소소재의 아름다움을 시각화한 카본아트 작품도 동시에 설치되어 관람객들의 관심을 모을 계획이며, 행사장 입구에는 전라북도 홍보관을 마련해 새만금, 토탈관광, 투자유치 등 전북 핵심사업도 소개한다.

11월4(토)에는 JEC 그룹이 사전에 구성된 탄소산업 전문가 및 기업인 50여명을 구성하여 전주에서 복합소

재투어도 한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비롯하여 탄소 전문기업을 견학하여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메카인 전북을 홍보하고 국내외 탄소기업인들의 관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는 국제 컨퍼런스 및 대규모 국제 탄소복합재 전시회를 우리 전북도와 JEC그룹이 공동 개최함으로써, 도내 탄소기업에게는 탄소복합소재 관련 장비, 원·부재료 제조 기술, 응용제품 전시 등을 통해 최근 산업동향 분석, 아이템 창출, 제품 프로모션의 기회 활용 및 해외 신규 바이어 개척 등의 발판이 되고, 지난 10년 전북 탄소산업 육성에 대한 노력의 결실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 임노숙 탄소산업과장은 "제12회 국제탄소페스티벌(ICF)과 JEC ASIA의 성공적인 공동개최를 통해 ICF의 국제화를 도모하고, 전북이 한국 탄소산업의 중심임을 전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이번 행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진성 기자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

송하진 도지사는 11일 오전 11시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제345회 도의회 임시회 개최에 참석해 2017년도 전북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농촌관광, 온라인 예약 하세요

전국 광역 최초 서비스 구축... 접근성·편리성 향상 기대

전북도는 농촌관광 정보제공부터 예약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농촌관광 온라인 예약 서비스'를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구축하고 시범기간을 거쳐 7월 19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촌관광 온라인 예약 서비스'는 마을에서 숙박, 체험, 음식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는 자신의 선호에 맞는 상품을 날짜와 함께 선택할 수 있으며 지도검색 등 마을 방문 관련 상세정보와 이용후기 등의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특히 모바일 웹과 연계, 체험마을 운영자와 소비자에게 실시간으로 예약 현황이 통보돼 이용 편의성을 높이도록 설계 됐다.

전북 농어촌 종합지원센터에서 숙박, 식당 등 체험형 농촌관광 기반 관리 상태, 리더 및 사무 집담인력 보유 여부, 2가지 이상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판매 가능한 특산물 유무 등 현장 평가를 통해 1차 33개 마을을 선정했다.

이번 온라인 예약서비스 구축으로 소비자는 농촌 관광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고, 재방문 예약 시 간편한 예약이 가능하며, 관심분야 등록을 통해 맞춤형 정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등 편리해졌다.

또한, 참여마을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예약 및 스케줄 관리가 가능하고, 알림서비스 SNS를 통해 고객과 직접적인 소통으로 마을축제, 특산물 등을 홍보할 수 있게 됐다.

전북도는 방문객의 선호도 만족 등 농촌관광 수요시장 분석 기초 데이터 축적 및 활용을 통한 맞춤형 상품개발과 여행상품 홍보부터 이용까지의 경로 단축과 순발력 있는 시장 대응력 향상 등으로 효과적인 농촌관광 홍보가 가능하게 됐다.

도 농축수산물식품국 강승구 국장은 "농촌관광 활성화는 잠재적인 가족단위 관광 수요를 어떻게 농촌으로 끌어오느냐가 핵심"이라며 "'농촌관광 온라인 예약 서비스' 구축에 이어, 향후 AR 서비스 구축을 통해 가족단위 농촌관광 수요를 확대해 삼각농정의 핵심인 '사람'은 농촌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도의회 농경위, 현지 의정활동 농산물 유통·가공사업장 점검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이학수)는 2015년 10월에 설립하여 농산물 유통과 가공 분야의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익산시 목천동에 소재한 팜조아 농업회사법인(주)을 11일(화) 방문하여 현지의정활동을 펼쳤다.

팜조아 농업회사법인은 자본금 5억원으로 설립됐으며, 첨단설비를 보유한 농산물 전처리 및 식품제조 가공센터를 지난해 12월에 완공하여 HACCP인증, GAP, 친환경 인증 등을 획득해 대한민국 최고의 농산물 유통 전문회사로 도약하고 있다.

이학수 위원장은 "글로벌 수준의 경영 효율성을 위하여 끊임없이 혁신하고, 매출 500억원 달성의 성과를 이루도록 창의적으로 혁신하여 고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농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현장을 둘러보고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팜조아가 농가와 힘을 합쳐 위기속에서도 식품의 생산·유통·가공·판매를 통한 지역 상생과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경쟁력을 갖춰 나갈 것"을 전했다. /김진성 기자

마을기업 육성으로 새지평 실현 박차

도, 내달 18일까지 신청접수·총 10개소 모집... 1000만원 사업비 지원

전북도는 2018년도 마을기업 설립을 준비하는 예비마을기업 신청을 8월 18일(금)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예비마을기업 모집은 마을기업의 정체성과 사업성을 갖춘 공동체를 사전에 발굴하여 마을기업으로 육성하고자 올해 전북도가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예비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마을기업'의 사전 형태다.

신청 참가자격은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법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 법인이며 최소 5명 이상의 회원이 출자하여야 한다.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시군의 현지 조사와 적격검토를 거쳐야 하며 이후 전북도는 최종 심사를 통해 10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1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교육 및 컨설팅, 상품개발을 위한 재료비 등 경영상적 경비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고 전북경제통상진흥원(마을

기업 지원기관)에서는 2018년도 마을기업을 지정(행자부)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 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법인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마을기업 회원명단, 법인등기부 등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전해성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전북도와 마을기업 지원기관이 조력자 역할을 다해 경쟁력 있는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체성과 사업성을 갖춘 마을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LMO 유채재배 관련 재조사 소위원회 현장조사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소속 LMO 유채재배에 관한 재조사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는 11일(화) 완주군 비비정마을 일원의 미승인 LMO 유채 재배지를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현숙 소위원회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5월 강원도 태백시 소재 유채꽃 축제장에서 LMO 유채가 발견된 이후 도내에는 총11개소에서 LMO 유채를 재배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 LMO

종자를 수거하거나 채취 전 경운 등으로 폐기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처리방법이나 처리 지역에 대한 사후 관리 등이 미흡해서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난 6월 22일부터 1개월 간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현장점검을 실시한 완주 비비정 마을도 유채 경관지원사업의 일환

으로 2016년 12월에 36필지 5.6ha 규모로 유채를 재배했으나 LMO종자로 확인되어 지난 6월 초에 트랙터 경운을 3회 이상 실시해 전면 폐기처리했다.

이 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회 의원들은 도내 LMO 유채 재배 대상지에 대한 처리 실태에 대한 보고를 시작으로 비비정 마을의 LMO 유채 재배 대상지를 둘러보면서 폐기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관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반드시 공개하고, 아무리 소규모라도 LMO 오염지역이라는 것을 표시할 것을 요청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